

## 공황장애에서 Paroxetine치료에 따른 Serum Cholesterol 수치의 변화

김 의 정\* · 유 범 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과학교실\*\*

**연구목적** : 공황장애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하며,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계 위험인자중의 하나인 cholesterol 수치가 상승되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황장애 환자에서 실제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상승과 관련되는 cholesterol 수치와 catecholamines 수치가 상승하는지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의 일종인 paroxetine 투여 후 치료 전에 비해 이들 수치에 변동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 삼성서울병원 정신과에 방문한 38명의 공황장애 환자와 33명의 건강한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은 이학적 검사상 이상이 있거나 공황장애 외의 다른 1축 혹은 2축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Body Mass Index(BMI)를 측정하였고,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HAMA),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HAMD),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Spielberger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STAIS & STAIT)와 Anxiety Sensitivity Index(ASI)를 이용하여 증상 및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였으며 환자군은 치료 전과 치료 후 2차레에 걸쳐 평가를 시행하였다. 환자군에서는 이외에도 Clinical Global Inventory(CGI)와 Acute Panic Inventory(API)를 이용하여 치료전후의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였다. 모든 대상군에서 정맥혈을 채취하여 혈중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도파민 농도와 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HDL), low-density lipoprotein(LDL)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환자군에서는 치료 전후에 측정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환자군은 3 개월 동안 paroxetine(최대 용량 : 40mg/day)으로 치료받았으며 초기 1개월간에는 alprazolam을 동시에 투여 받았다. 통계분석은 t-test를 시행하여 두 군 간에 BMI, 심리척도 및 혈중 카테콜아민 농도와 지질농도를 비교하였고 paired t-test를 시행하여 환자군에서 치료 전후의 심리척도 및 혈중농도를 비교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환자군(치료전)과 대조군 사이에 연령, BMI 및 혈중 카테콜아민 농도와 지질농도 수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HAMD, HAMA, BDI, STAIS, STAIT 및 ASI 점수는 환자군(치료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

† 교신저자 E-mail : bhyu@smc.samsung.co.kr

2) 환자군에서 치료전과 치료후의 BMI와 혈중 카테콜아민 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CGI, HAMD, HAMA, BDI, STAIS, STAIT, ASI 및 API 점수는 치료 전에 비하여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 $p < 0.001$ ).

3) 환자군에서 치료전에 비하여 치료후의 cholesterol, HDL 및 LDL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각각  $p < 0.005$ ,  $p < 0.05$ )

**결론 :** 본 연구 결과는 공황장애 환자에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인 paroxetine의 투여가 혈중 지질 농도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혈중 지질농도의 상승은 공황장애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